



대교협 동정



소재분야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결과 발표

◎ 소재 관련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결과, 금속철강분야 최우수대학 4개교, 신소재분야 최우수대학 5개교 선정

-지역 밀착형, 산업체 맞춤형 교육노력으로 조선대, 창원대 등 지역대학 강세

◎ 분야별 산업계 요구에 따른 대학 교육과정 개선방향 제언

- (신소재)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교과목 강의를 위한 산업체 경력 교원을 확보해야

- (금속철강) 전공 이수기준을 개선하여 산업계 요구 교과목 수강을 독려해야

□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함인석)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5월 23일(수)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2011년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 결과 발표 및 논의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2011년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는 금속공학과, 재료공학과, 신소재공학과 등 소재산업 관련 전공이 설치된 대학 중 참여를 희망한 30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포스코,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현대제철 등 총 31개 기업이 평가에 참여하였다.

○ 평가는 산학연계 교육인프라, 산업계 요구와 교육과정 일치도, 교육 및 기술개발 성과 등 3개 영역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평가 자료로 대학정보공시자료, 산업계 평가위원 평가 및 졸업생·부서장 설문조사를 활용하였다.

□ 평가결과 최우수 대학은 금속철강분야 4개 대학, 신소재 분야 5개 대학이 선정되었으며, 이 중 한양대ERICA는 금속철강 및 신소재 두 분야에서 모두 가장 우수한 대학으로 평가되었다.

< 소재분야 평가결과 최우수대학 순위 >

금속철강	한양대ERICA, 연세대, 창원대, 성균관대
신소재	한양대ERICA, 성균관대, 조선대, 연세대, 한양대

□ 대교협 관계자는 “이번 평가에서는 기존의 우수 대학들도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지역 내 업체들과 산학협력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조선대, 창원대 등 지역 대학들이 최우수 대학으로 평가받은 것이 특징”이라며, “유사한 지역대학이나 소규모 대학들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 이번 세미나를 통해 평가결과 최우수등급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들의 산학협력 사례가 소개되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대 특성화 전략분야 지정을 통한 산업체 친화형 교과과정

- 정기적인 산업체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산업체 친화형 교과과정 운영
 - 최근 5년간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광산업, 나노산업, 자동차부품산업을 특성화 전략 분야로 지정
- 취업연계 원스톱 프로세스(산학융합연구실 운영)
 - 학과 관련 산업체를 산업단지캠퍼스에 유치하여, 교육 및 현장실습에 활용
 - 3학년 인턴십, 4학년 캡스톤디자인 및 현장실습을 통하여 취업과 연계

창원대 지역 산업체 기술 지원을 통한 산학협력 및 현장중심 교육

- 창원기계산업단지내 위치하고 있으며 금속신소재공학과는 부품소재 전문 산업체의 기술 지원 센터로서의 역할
- 지역내 핵심 소재기업인 포스코특수강과 제휴를 통해 “포스코특수강트레”를 개설하여 산학협동과정으로도 운영
- 12학년 기초기본 교육 후 34학년에서 산업체 맞춤형 교과목의 수업을 이수하고 방학기간을 통해서 현장실습 교육 참여

한양대ERICA 학연산 클러스터 교육을 통한 기업친화적 연구인력 양성

- 학연산 클러스터 존에 140여개 기업이 입주하여 있으며 산학연 전담조직 활성화로 취업 및 기술이전 극대화
- 6시그마, 프로젝트 관리 등 대기업이 실시하고 있는 직원교육 과정을 학부 과정에 도입해 교과목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등 실무형 교과목 운영
- 졸업논문을 ‘캡스톤 디자인’으로 대체 가능하도록 함

□ 한편, 산업계 요구 분석을 토대로 기업 현직 부서장,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대학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 금속철강 분야에서는 단위조작·연소공학·제어압연론, 신소재 분야에서는 재료신뢰성공학·세라믹공정 등의 교과목이 산업계 요구도는 높으나 대학 교육과정에서의 운영 적절성(개설률, 이수율, 내용 및 강의방법 적절성 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계 요구와 대학 교육과정 운영 간의 격차가 큰 교과목 >

분야	금속철강	신소재
과목명	단위조작, 연소공학, 제어압연론	재료신뢰성공학, 세라믹공정, 소결공학
격차발생 이유	- 일부 교과목을 통합하여 운영 - 타 과 전공과목으로 개설되는 경우 이수 인정기준 미비 - 일부는 특정 기업에서만 필요로 하여 개설률 저조	-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교과목 강의를 위한 산업체 경력 전문가 부족 - 나노공정 등 실습교육에 필요한 고가 장비나 측정설 등 시설 미비

□ 이날 세미나에서는 산업계 관점에서의 평가결과를 통한 시사점을 발표하고 대학관계자들과 논의하였는데,

- (금속철강 분야) 오문식 철강협회 본부장은 “최근 금속철강분야와 신소재분야의 전공이 통합되어 금속철강 기초과목 배양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 “타 과에 개설된 전공과목이라도 이수할 수 있도록 인정기준 개선이 필요하고, 특성화 여부에 따라 기업연계형 교과목 추가 개설이 필요하다”고 평했으며,

- (신소재 분야) 평가에 참여한 대기업 디스플레이 수석 연구원은 “최근 스마트폰 보급 확대 등의 이유로 전자소재분야 트렌드가 지속 변화하고 있는데 비해 대학 교육과정의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산업체 경력 교원 확보를 포함해 최신기술 트렌드를 받아들이기 위한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며, 특히 공정과정, 소결공학에 대한 심도 높은 교육을 위한 실험 시설 구축 또한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과 경제 5단체*의 협조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관하는 산업계 관점 대학평가는 2008년을 시작으로 올해로 4년째 시행되어 전 산업 분야에 대한 평가가 완료되었으며,

*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 2012년부터 이루어질 2기 평가에서는 매년 7~8개 산업분야에 대해 2년 주기 평가를 실시하여 피드백(feed-back)을 강화하고,
- 공학교육인증 시 산업계 관점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두 제도의 상호보완을 가능하게 하는 등, 우리나라 공학교육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2012년 대학 및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2차 사업 공고**

- 저소득층(30%) 등 취업취약계층 참여 및 지원 확대
- 파견 국가를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영어권에서 중동, 동남아, 중남미 등으로 다변화 지속 추진

□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함인석)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012년 대학 및 전문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2차 사업」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 2012년 2차 선발 인원은 총 360명 내외(대학 130명, 전문대학 230명)이고, 6월 중에 선발되어 사전교육을 거쳐 8월에 파견될 예정이다.

- 대학은 전공과 연계하여 「글로벌 현장학습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고보조금의 50%를 대응투자하고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20학점 내외로 학점을 인정해야 동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학생은 대학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휴학생, 전문대학 2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으로 대학 평점은 평균 B⁺이상이고, 일정수준의 어학능력 기준을 충족하여야 참가할 수 있다.

- 참가자 선발은 대학의 경우는 소정의 참가 조건을 갖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자체기준으로 선발하고, 전문대학은 학교에서 자체기준에 의해 추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대학협의회에서 공인 외국어 스피킹 성적을 기본으로 하되, 저소득층, 계열별 및 언어권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특히, 전문대학의 경우 2차부터 객관적 평가를 위해 기존 외국어 구술면접평가에서 공인 외국어 스피킹 성적으로 대체하였다.

※ 공인 외국어 성적

- 영어 : TOEIC Speaking 또는 OPIC, 일본어 : SJPT, 중국어 : 신HSK 회화 또는 TSC

□ 학생선발은 1차 선발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경험이 적은 저소득층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30% 할당 선발을 실시하며, 국고보조금과 대학의 대응투자 이외에 개인 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한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1분위는 자비부담경비의 전액, 소득 2~3분위는 80%, 60%로 차등 지원

◦ 정부재정지원 방식도 1차 사업과 동일하게 파견지역과 학생의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지원하게 되며, 전문대학생은 공통 국고지원금 이외에 현지에서 실시하는 어학교육비와 직무교육비 및 체재비(일부)를 추가 지원받게 된다.

<파견 지역별 국고지원금 지원기준>

(단위: 천원)

구 분	항공료	비자발급비	인턴십관리운영비	보험료	소 계
영 어 권	2,000	1,000	1,200	300	4,500
일 본 권	900	600	1,200	300	3,000
중 국·동남아권	700	300	900	300	2,200

□ 이와 더불어, 파견지역의 편중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파견국가를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영어권에서 중동, 동남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으로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대학생은 비영어권 국가 신청시 가점 부여를 확대하고, 전문대학생은 말레이시아 지정공모를 우대 선발하며, 특정 언어권 편중 방지를 위해 언어권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선발할 계획이다.

□ 동 사업의 신청을 원하는 대학과 전문대학은 정부해외인턴 포털사이트(www.ggi.go.kr)에 탑재되어 있는 공고문을 참조하여 대교협 및 전문대교협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중동지역의 리더 양성과 취업 지원

을 위해 수립된 "글로벌 청년 리더 중동지역 진출 활성화 방안('11.3)"에 따라 6~7월 중에 중동으로 특화된 대학 및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여 추가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원대학 소식



한국항공대학교



□ 한국항공대학교(총장 여준구)가 24일 오전 11시 교내 대강당에서 개교 60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1952년 국립대학으로 출발해 2012년 현재 국내 최고의 항공우주특성화 대학으로 자리매김한 한국항공대는, 국내 주요 산·관·연 인사들은 물론 동문들을 초청해 지난 6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제2의 도약을 위한 비전을 선포했다.

□ 이날 행사는 지창훈 정석학원 이사장의 기념사와 여준구 한국항공대 총장, 김호형 총동창회장의 환영사로 시작해 최성 고양시장, 김태원 국회의원, 여형구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장, 최종배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 김필레 고양시의회 의장의 축사로 이어진 1부와 교직원 및 외부 유

관기관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시상식인 2부로 나눠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국내외 약 450명의 인사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후 오찬을 함께 하며 한국항공대 개교 60주년을 한마음으로 축하했다.

□ 1952년 한국전쟁 중에 부산에서 교통부 산하 교육기관으로 개교한 한국항공대학교는, 1954년 수업연한 4년제의 국립항공대학으로 개편하고, 1979년 주식회사 대한항공에서 인수하여 사립대학으로 새롭게 탄생했다. 이후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과 함께 발전하면서 지난 60년간 국내 항공우주전문인력의 다수를 양성해왔다. 현재까지 한국항공대가 배출한 동문은 2만 여 명에 달한다.

□ 학교법인 정석학원의 지창훈 이사장((주)대한항공 대표이사)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한국항공대는 개교 이래 60년 간 우리나라 항공우주분야의 발전과 그 맥을 같이 해왔다”며 “이제는 그간의 도전을 예순이라는 나이에 맞는 ‘성숙함’으로 승화시켜, 다음 세대를 이끌 리더를 양성하고 대한민국의 항공우주 시대를 책임지는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 여준구 한국항공대 총장 역시 환영사에서 미래를 향한 비전을 강조했다. 여 총장은 “대한민국이 미래의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항공우주산업이라는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지닌 분야를 새롭게 개척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항공우주는 대한민국의 미래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끄는 것은 한국항공대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 이날 한국항공대는 개교 6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유일의 항공우주특성화대학으로서 국내 항공우주분야 교육과 연구를 선도하여 세계적 수준의 항공우주특성화대학(Global First-Tier University in Aerospace Education & Research)으로 거듭나겠다는 내용의 대학 장기발전계획인 ‘비전 2020(Vision 2020)’을 발표했다.

□ 한국항공대 발전에 크게 기여한 여러 인물들에게는 개교 60주년 기념상이 수여됐다. 개교 60주년 기념상은 크

게 특별공로상과 산학협동상으로 나누어 시상했다.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인물들에게 주어지는 특별공로상은 이채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성시철 한국공항공사 사장, 김영환 경기도의회 의원, 이원갑 대한민국항공회 총재, 김경오 대한민국항공회 명예총재, 강현석 전 고양시장, 황철 대한항공 운항본부장, 김세한 대한항공 상근고문 등이 수상했다. 모교 발전을 위해 1억 원을 쾌척한 정선이 두원공과대학 교수와 김인배 텔레웍스 사장에게도 특별공로상이 수여됐다. 한국항공대와 경기도의 산·관·연 협력 강화에 기여한 인물에게 주어지는 산학협동상은 경기북부지역 기업인인 임승억 (주)존앤던 대표이사과 이광희 국토해양부 항공안전감독관이 수상했다.

□ 한국항공대는 이번 개교 60주년 기념식을 시작으로 국내외에서 다양한 문화 및 학술행사와 동문초청행사를 열 예정이다. 6월 중순까지 계속되는 개교 60주년 행사는 한국항공대 개교 60주년 홈페이지(kau60th.kau.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호남대학교



□ 호남대학교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육성사업단 창업보육센터(센터장 이동렬)는 3일 오후 4시 광산캠퍼스 5호관 현명관 2층에서 ‘2012 창업동아리 출정식 및 간담회’를 실시했다. 양승학 사업단장 등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는 창업동아리 지원 사업 설명, 창업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가 진행됐다.



□ 조선대학교(총장 이상열)가 제4회 밤샘책읽기 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올해는 조선대학교 학생은 물론 해군사관학교 학생, 한국독서연합회 회원들이 참여하여 조선대학교의 축제가 아닌 지역민과 함께 하는 독서축제로 거듭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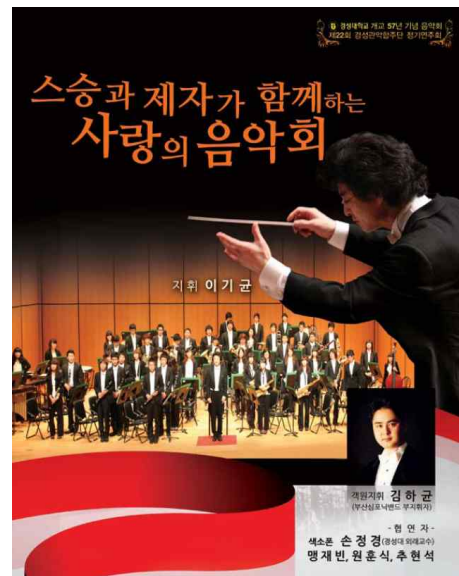
□ 제4회 밤샘책읽기는 조선대학교 학생 100명, 해군사관학교 독서클럽 해돋이 회원, 한국독서연합회(회장 조양곤) 회원 등 200여 명이 중앙도서관에 함께 모여 5월 25일 8시부터 다음날인 26일 새벽 6시까지 10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조선대학교 명저·권장·추천 300선과 독서토론클럽도서를 읽으며 밤샘 독서를 진행했다.

□ 밤 11시30분부터는 중앙도서관 7층 영상세미나실에서 공진성 교수(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사회로 조선대 독서토론클럽 회원 2명, 해군사관학교 해돋이 회원 2명, 한국독서연합회 회원 2명이 패널로 나서 지정도서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장 지글러 저)를 가지고 북좌담회를 가졌다. 북좌담회에서는 기아에 대한 원인과 기아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기구 활동, 구호 행위에 내포된 딜레마, 기아문제를 한국인의 삶과 연결해서 어떻게 해야하는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세 번의 휴식시간에는 '노래하는 그림책 작가' 나비연씨의 노래 공연과 독서퀴즈가 열리고 간식을 제공하여 다시 독서에 집중할 수 있는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 밤새 잠들지 않고 아침까지 미션을 완수한 참가자에게는 수료증을 증정하고 독서마일리지를 부여했다.

□ 해군사관학교 해돋이(海圖知 해군사관학교 도서관을 사랑하는 지성인들의 모임)는 학생들의 독서클럽이며 한국독서연합회는 27개 클럽, 3,000여 명의 회원들이 모여 책 읽는 사회 구현과 독서토론의 활성화, 독서동아리의 교류 등 독서문화의 진흥은 물론 회원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독서문화의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 류찬수 중앙도서관장(사범대학 과학교육학부)은 “밤샘 독서는 영상 매체에만 익숙한 대학생들에게 책을 읽는 즐거움과 용기를 주고 특히 명저를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라며 “특히 올해는 조선대학교 학생들과 해군사관학교 학생, 한국독서연합회 회원이 한 자리에 모여 책을 통해 마음을 나누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고 밝혔다.



□ 경성대학교(총장 송수건) 음악학부 경성관악합주단은 5월 30일(수) 오후 7시 30분, 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제22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하였다.

□ 경성관악합주단의 이번 연주회는 경성대 개교 57주년을 맞아 '스승과 제자가 함께 하는 사랑의 음악회'라는 타이틀로 진행된다. 연주회의 출연자는 지휘 이기균(음악학부 교수, 객원 지휘 김하균(부산심포닉밴드 부지휘자), 협연에 색소폰 손정경(음악학부 외래교수), 원훈식(경성대 4년), 맹재빈(경성대 3년), 추현석(경성대 3년) 등이다. 경성관악합주단은 매년 경성대학교 콘서트홀에서 전석 만석을 기록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책 의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300여명의 호남·제주권 대학 교직원 및 학생들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였다.

□ 교과부는 '지역대학 발전 방안'을 대학구성원과 폭 넓은 소통을 거쳐 마련하기 위해 이미 충청권(4.20)과 강원권(4.25), 대경권(5.2), 동남권(5.4)에서 4차례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마지막으로 호남·제주권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도 반영하여 6월에 '지역대학 발전방안'을 최종 확정·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남·제주권 지역대학 발전을 위한 토론회

- 지역대학 시대 개막 선언 및 호남·제주권 교직원·학생과 소통 -



□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5월 25일 10시 전북대에서 개최된 '호남·제주권, 지역대학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호남·제주권 대학의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직접 '지역대학 발전 방안(시안)'을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 이날 이주호 장관은 지난해 고졸시대를 지나, 올해에는 지역대학을 지역성장의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여 대학이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지역대학 시대"를 열기 위한 정

2012 대한민국 학생창업 페스티벌 개최



□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전국 규모의 학생 창업축제에 전국 130개 대학(261개 동아리)에서 1,248명이 참가 신청을 했을 만큼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전국 학생창업 네트워크(SSN)*」가 공동 주최하고, 벤처기업협회,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한국연구재단,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주관하는 「2012 대한민국 학생창업 페스티벌(2012 Korea Student Startup Festival)」이 5.29(화) 서울대 문화관에서 열린다.

* SSN(Student Startup Network) :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설립한 창업 동아리 모임으로 44개 대학 69개 동아리 가입(5.25 기준)

□ 이번 행사에서는 “대한민국 대학생들의 꿈! 그 꿈의 가능성을 응원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학생창업 문화 조성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창업에 관심 있는 대학생들과 선배 창업가들이 정보를 교환하는 만남의 장이 펼쳐진다.

□ 행사 첫 순서인 개막식에서는 창업 동아리를 대표하는 기수단 입장을 시작으로 「전국 학생창업 네트워크」의 공식 출범을 선언한다. 그동안 개별로 운영되던 대학의 창업 동아리가 전국 규모의 연합모임 결성을 알리고 축하하는 자리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본 행사에는 국내외 성공창업가들이 자신의 창업 경험을 전달하는 시간을 갖는다. 먼저, 위키피디아의 창립자인 지미 웨일스(Jimmy Wales)가 기업가마인드(Entrepreneurship)를 주제로 자신의 경험과 꿈과 철학을 이야기하는 특별 강연이 주목받고 있다. 또한, 국내 성공 창업가인 신현성(티켓몬스터), 박희은(이음소시어스), 박희열(모모트 디자인 스튜디오)을 초청하여 자신의 경험담을 소재로 학생들과 소통하는 창업공감 토크콘서트가 열린다.

□ 또한, 각종 창업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는 국내외 대학생 예비창업가들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시간도 함께 마련되어 있다. 웹사이트 약성 댓글을 줄이는 댓글 솔루션(씨지온(cizion) 김범진), 게임과 음악이 접목된 새로운 개념의 소셜 음악 서비스(아이디어보브(IDEABOVE) 이인영), 온라인 차량관리 프로그램(큐로카(Curocar) Isabelle Park), 아이디어에서부터 창업 준비과정까지 엿볼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형식의 진행은 학생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던 창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60명의 선배창업가를 멘토로 초빙하여 전체 참가자들과 함께 정보를 나누고 참여하는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이채롭다. IT, 지식서비스, 모바일,

제조, 첨단기술, 전자상거래 등 창업 희망 분야별로 모인 학생들이 해당 분야의 창업 멘토와 점심식사를 하며 창업에 대한 조언을 듣고, 같은 분야에서 창업을 꿈꾸는 동료와 인적관계를 형성하는 네트워킹 런치가 진행된다.

□ 이번 행사는 창업을 꿈꾸는 전국의 대학생들이 모여 창업 성공과 실패를 함께 고민하는 장으로 우리 대학의 창업문화를 꽃 피우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부대행사로는 대학의 창업교육 활성화를 주제로 하는 워크숍과 전국 학생창업 챔피언십 경진대회 예선전이 열린다. 본 경진대회는 전국 50개 대학에서 1팀(5명)씩 출전하여 향후 5개월간 창업에 필요한 기업가마인드, 창의성, 도전정신을 경험하는 창업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를 기다립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귀 대학의 정보를 홍보할 수 있도록
기사와 사진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사 보내주실 곳: weeklynews@kcue.or.kr

지난 주간대학교육(국문) 보기:
<http://www.kcue.or.kr/>->대학교육소식->주간대학교육

* 구독신청
대교협 대외협력팀으로 연락을 주시면
(02-6393-5308)구독자로 등록해드리며
매주 1회 개별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